

# 말쓰기를 혁명하십시오

이재관

현대승공업 노동자

우리말 바로쓰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네요. 다른 게 아니고 '내 글을 살펴 봐주세요.' 하는 부탁을 받았으니까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도마 위 에 오르는 일'을 꺼려 하니까요.

이번호에서는 「노동사회」 2월호에 실린 번역글 「남아프리카노동운동의 발전전략 : 사회노동조합주의」 꼭지를 살펴 보려 합니다. 제목부터가 묵직하죠? 사실 우리말 바로쓰기 꼭지가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이렇게 꼼꼼히 읽어 볼 수 있게 된 것도 제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번역글을 읽노라면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술술 넘어가지 않고 자꾸 걸린다는 것이죠. 왜 그런고 하니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말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이상으로 길거나 '의' 라는 토씨를 끼워넣어 해석

을 어렵게 합니다. '풀이말' 중심이 아니라 '구멍말' 중심으로 글을 쓰니 더 어렵습니다.

보기를 들어 볼까요? 보기글이 맘에 안 드는 분들도 참고 읽어 주세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무국에는 아주 예쁜(옥!) 이선옥씨가 일하고 있습니다.' 온통 '이선옥'을 꾸미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옥씨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말법이 됩니다.

'사회주의를 향한 이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공산당에 대한 지도력을 충분히 해야 한다.' 이 글도 '노동조합의'를 '노동조합이'로 토씨 하나만 바꾸어 면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녹색평론에서 퍼낸 「라다크로부터 배운다」와 브리에서 퍼낸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나 사회평론에서 나온 『개으름에 대한 찬양』은 참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권했더니 글씨, 다음날 책을 돌려 주더라고요. 어려워서 못 읽겠다면서.

제 생각으로는 외국글을 번역할 때 1차 번역을 거쳐 다시 우리말법으로 고쳐서 책을 펴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책 내용이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더 잘 읽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낫두리가 길었네요.

윤효원 교육위원이 쓴 「사회노동조합주의」를 살펴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훌륭한데?’ 하다가 뒤로 갈수록 ‘그러면 그렇지, 내 판단이 너무 급했어.’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ㅎㅎㅎ. 한마디로 말해 ‘뒷심이 모자랐다’는 겁니다.

뒤로 갈수록 번역투가 눈에 걸리고 평소 쓰던 글버릇이 묻어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많이 고쳐야 할 내용은 역시 중국글자 말을 많이 쓴다는 점이더군요. 지금부터 살펴 보겠는데요, 첫째는 중국글자말, 둘째는 하임움직씨 ‘-시키다’, 셋째는 ‘—으로서의, —에서의, —과의’ 라는 글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동태 글버릇입니다.

또 한가지, 뒤로 갈수록 ‘쩍쩍’ 거리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둥’이라는 말이 왜 안 보이는가 했더니 ‘따위’로 고쳐 쓰셨더군요. 짹짹!

## 1. 우리 말로 바꿔써도 넉넉할 중국글자말

밑줄을 그며 살펴보니 셀 수 없이 많지만 흔히 쓰는 것은 봐 두고 꼭 고쳐 썼으면 하는 말 만 간추렸습니다. 거의 ‘중국글자+하다’로 쓰고 있는데 제기, 실증, 방기, 잔존, 전복, 돌파, 인상, 개시, 정제, 경감, 동결, 초래, 종식, 잠식, 기초한, 부여, 주도, 봉착, 외중, 충족, 직면 따위 낱말은 우리 말로 썼을 때 뜻이 여러개로 되거나 입말로 읽을 때도 썩 좋지 않은 것들로 우리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제기’로 썼을 때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그릇’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 입말로 하면 ‘자로詹다’는 말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인상, 전복, 직면 따위도 마찬가지겠지요?

△ 고투하고 있는 - 힘들게 싸우고 있는  
△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 의문을 갖게 (품게) 된다

△ 극복하고 - 이겨내고

△ 보고서로 집약하여 - 보고서에 담아서  
△ 사회민주화에 기여하는 사회민주화에 이바지하는

△ 고정불변한 변치않는

△ 일자리가 대량으로 창출되고 -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고

△ 임금이 향상되며 - 임금이 높아지며

△ 계급갈등이 고조되는 - 계급갈등이 커지는(높아가는)

△ 모세에서 연유한 개념으로 - 모세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 △ 군대와 경찰에 잔존하는 - 군대와 경찰에 남아있는
- △ 기득권 세력이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 기득권 세력이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 △ 나아가 전복할 수 - 나아가 뒤집을 수
- △ 모든 부문으로 확대해야 - 모든 부문으로 넓혀가야
- △ 적대세력에 포위되어 - 적대세력에 둘러싸여
- △ 기본적인 위생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 - 기본이 되는 위생혜택조차 받지 못한다
- △ 수십년간 누적된 - 수십년 동안 쌓인
- △ 백인자본가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다 - 백인 자본가 손아귀에 들어 있다
- △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 요구를 채워주기 위한
- △ 개입주의에 기초한 - 개입주의에 바탕을 둔  
(이와 비슷한 말로 '자리한', '위치한'이 있는데 모두 틀린 말입니다. '서울 회현동에 위치한 (자리한) 연구소'는 '서울 회현동에 있는 연구소' 하면 됩니다.)
- △ 불평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 불평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떠나가야
- △ 20~30%에 육박하는 - 20~30%에 이르는
- △ 대폭 인상하도록 - 큰 폭으로 올리도록

- △ 결과를 초래할 수도 - 결과를 가져올 (낳을) 수도
- △ 권한이 부여되며 - 권한이 주어지며 (권한을 갖게 되며)
- △ 어려움에 봉착한 - 어려움에 맞닥뜨린(빠진)
- △ 광범위한 - 폭넓은
- △ 방기함으로써 야기되고 있는 - 내버려둠으로써 일어나는  
(이 정도만 합니다. 나머지는 줄을 긋고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은 공부 가 될 겁니다.)

## 2. '-하다'를 '-시키다'로 잘못쓰는 버릇

1928년 최현배선생이 쓴 '우리말본'에 이런 글이 있지요. '우리 말 <하다>로 턱턱한 것을 공연히 하임움직씨 <시키다>로 쓰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살펴보니 이 또한 중국글자말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잘못쓰게 되었다고 봅니다.

- △ 민주국가로 변모시킨 새 헌법과 - 민주국가로 바꾼 새 헌법과
- △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고-민주주의를 앞당기고
- △ 자본을 자유롭게 이동시켜-자본을 자유롭게 옮겨 가
- △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영향력을 떨어뜨리고
- △ 기능을 점차 마비시키고 있다-기능

을 제대로 못쓰게 만든다

△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노동생산성을 끌어올려야

△ 직무만족을 향상시킬-직무만족을 위한

### 3. 의, 으로서의, 으로부터의, 과의, 에로의, 로의, 으로의, 에의, 로서의

우리 말에서는 토씨 '의'를 잘 안 씁니다. 어쩌다 쓰더라도 매김자리토(관형격 조사)로 씁니다. '아버지 전화를 받았다', '우리 집으로 간다' 고 하지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우리의 집으로 간다' 고 하지 않는 것처럼.

'어제 나는 나의 집의 뒤의 나의 집의 발의 나의 집의 복숭아를 따먹었습니다' 일본의 한 소학교 아이가 쓴 글입니다. (『우리글 바로쓰기』 책에서) 이건 도무지 우리 말이 될 수 없지요. '나는 어제 우리 집 뒤에 있는 우리 발 복숭아를 따먹었습니다.' 이래야 비로소 우리 말이 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이 아니라 '내가 살던 고향은' 이라 해야 우리 말인 것처럼요.

여기서 한 술 더 떠 위 (3)제목에 적어 놓은 과의, 에의 따위 일본말을 마구잡이로 씁니다.

참 부끄러운 노릇이지요.

△ 정치사회 동맹에의 참여가-정치사회 동맹에 참여 하는 것이

△ 그동안 빼앗겨 왔던 작업장에서의(5번)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 그동안 작업장(일터)에서 빼앗겨 왔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 노동조합과의 협상회피 - 노동조합과 협상을 앉으려 하고

### 4. 수동태를 능동태로 써야

흔히 되어진다, 보여진다, 생각된다, 여겨진다, 판단된다 따위 수동태를 많이 씁니다. 이 말 버릇은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나타내길 꺼리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세에서 굳어진 몹쓸 말 버릇입니다.

생각은 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데도 '생각됩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되어 진다고 보여집니다' 따위 기가 막힌 말을 만들어 씁니다. 이 대목에서 가슴을 한번 쳐야겠 내요. 쿵!

△ (코사투는)유효한 전략으로 여겨진다 -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 삼자동맹이 견고해져야 한다고 - 삼자동맹을 굳게 맺어야 한다고

△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맞춰야 한다

△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투명함을 확보(가져야)해야 한다

△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 전개해야 (떠나가야) 한다는 것이

- △ 노동조합은 민주주의를 통해 건설되며, 지도자들은 선출되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며 - 노동조합은 민주주의를 통해 건설하며, 지도자들을 뽑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 △ 작업장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 작업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 5. 적(的)과 입장, 그리고 그밖에

- △ 비효율적인(우와, 많다!) - 효율이 낮은
- △ 극단적인 두가지 입장이 일말의 진실을 - 갈라져 맞서는 두가지 입장이 한가닥 진실을
- △ 지속적으로 - 끊임없이
- △ 전투적이고 민주적일 수도 혹은 관료적일 수도 있다 - 전투기풍과 민주주의에 바탕을 둘 수도 있고 관료주의로 흐를 수도 있다

적(的)은 워낙 여러번 얘기했으니 그만 하렵니다. 글 가운데 '입장'이라는 말이 참 여러번 나 오는데 이도 '처지'나 '태

도'로 바꿔 쓰면 좋겠습니다. 글줄에 따라 '생각'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와 '씨'를 바로 써야 하는데 몇 군데는 반대로 썼네요.

'서'는 인격이나 자격을 나타낼 때 씁니다. 선생님으로서, 투자자로서,... '씨'는 도구나 방법을 나타낼 때 씁니다. 삼자기구로써, 수단으로써, 함으로써...

위에서 살펴 본 글은 윤효원 교육위원만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글을 쓰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없이 쓰는 글입니다. 오히려 「사회노동조합주의」는 외국글을 번역하면서 깨끗하게 썼다고 봅니다. 열네쪽이나 되는 긴 글을 뒤적거리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고쳐서 바르게 쓰려고 애쓰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말글을 바로 쓰자는 일을 '터무니 없는 짓'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 뭐라 할까? 그러다가 맘을 다잡습니다. 이선옥씨가 한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렇다, 난 지금 혁명을 하는 것이다. 혁명의 길이 어디 쉬운 길이더냐.' 너무 주제넘었나요? 우리 말글 바로쓰는 일 게을리 마시고요, 다음호에 뵙지요. ❖

말과 생각

**바보는 방황하고 현자(賢者)는 여행한다.**